



심상치 않습니다
이 나라 국운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남이 많이 아픕니다
나라와 호남의 미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기, 황주홍이 있습니다
그는 멀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이름

3

황주홍

소신과 추진력에서 다릅니다

황주홍은 처음부터 생각이 달랐습니다

- 황주홍이 가장 좋아하는 말 : “불의에 맞섬으로써 외롭도록 정의를 지킨다.”
- 좌우명 : 국민
-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벼슬자리 : 대한민국 국민 자리
- 가장 자주 쓰는 영어 : “I am a Nobody(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관 : 애국심과 이타주의(利他主義)
- 가장 자주 쓰는 우리 말 : “역사가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역사의 편이냐 아니냐다.”
-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기 지침 :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한다.”
- 가장 좋아하는 노래 :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 중
“♫아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라는 대목
(우리 전라도를 생각하면,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는 뜻).

국민의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책자형 선거공보



생각이 달랐기에 실천도 달랐습니다.

황주홍은 교수 출신답지 않게, 말보다 실행을 중시했습니다.

- 남들은 휴직 처리해놓는 교수직(정년 65세)을 정계 진출하며 깨끗이 사직.
- 군수 3번하면서 단 돈 1원 한 장 오가지 않는 깨끗함으로 강진군을 바꿨다.
- 군수시절 10년이 넘는 관용차를 탔었고, 지금 타는 차도 중고차를 구입한 것임.
- 전남도당 위원장 당시 한국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경비 사용 내역 전체를 당보를 통해 매월 투명하게 공개했다. **“커피 한 잔 마신 것까지…새정치연 전남도당 ‘파격’ 당비 공개”** (동아일보, 2015년 4월 2일)
- 특권의 상징인 국회의원 배지(뺑지)를 단 한 번도 안 찼다.
- (기초단위) **정당공천 폐지 전국 대표로 폐지운동의 기수**가 되었다.
-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을 대표 발의했다.
- 종편(종합편성TV) 출연 금지라는 어이없는 당론을 철회시켰다.
- 국가원수(대통령) 국회 본회의장 방문시 예우상 기립 관행을 확립했다.
- 박근혜 후보처럼, 문재인 후보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대선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공론화했다.
- 2014년 황주홍은 초선의원으로서 3선, 4선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여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장외투쟁을 중단**시키는 연판장 서명을 주도했고, 언론의 큰 호응을 받았다.
- 문재인·김상곤 주도의 엉터리 혁신안 관철 위한 당무 감사에 모두가 묵묵히 순종할때, 홀연히 부당 감사를 거부했다.
- 지난 12월 17일 정권교체를 위해 새정연을 소신 탈당하고, 신당을 만들었다.



한국 언론은 황주홍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당 지도부나 동료 의원들에겐 그의 존재가 편치 않을지 몰라도, 국민들은 속이 후련하다. 모난 돌이 정 맞는 정치판이라서 그의 존재가 더욱 돋보인다.” 2012.9.11. 세계일보
[초선일기 쓰는 민주당 황주홍 의원]
조남규 정치부 차장
- “황주홍 사례, 호남 정치의 바로미터. 호남에는 황주홍 같은 정치인이 필요하다” 2015.5.4. TV조선
[이영작(한양대 석좌교수)의 고언자략]
- “황주홍, DJ(김대중 대통령)께서 새정치를 하고자 힘들게 영입한 분이였다” 2015.12.9. MBN
[송지현의 와이드] 민영삼 정치평론가
- “황주홍같은 이가 민주당(야당)에 있어 다행이다” 2012.8.1. 중앙일보
[노트북을 열며] 신용호 정치부 차장
- “(황주홍 의원은) 정치를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2012.6.19. 동아일보
[오늘과 내일] 이진녕 논설위원
- “황주홍 의원이 답이다” 2013.12.19. 호남일보의 사설 제목



조선이었지만 조선 이상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 야권 전체에서 유일한 3선 자치단체장이었다.
- 야권 전체에서 서너 명 뿐인 미국 박사·교수 출신으로 당내 이론가로 활동했다.
- 국회의원 300명 중 유일하게 3회 연속 정치개혁 특별위원을 지냈다.
“황주홍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선봉이다.”
(헤럴드경제, 2012년 7월 6일)



한국 정치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 반드시 기초단위 정당공천제를 폐지시킨다.
-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국민소환제(국민파면제)를 적용시킨다.
- 특권의 상징인 국회의원 배지 패용을 금지시킨다.
- 국회내 모든 건물에서 완전 금연시킨다.
- 중앙당을 미국처럼 축소시킨다. (당 대표제 폐지)
- 중앙당의 전략공천권 포기시킨다. (국민공천제를 법제화)
- 파벌과 패권정치의 온상인 비례대표를 축소하여 농어촌 선거구를 회복한다.

황주홍, 국회에서 이렇게 지냅니다.

의원회관에 놓여진 간이 침대...
황주홍은 여기에서 톼툼이 쪽
잠을 자며,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 ‘덜 싸우고 더 일하는 전라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우리끼리 싸우는 한, 호남의 미래는 없다.
△수도권 등으로부터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따뜻한 호남민’ 이미지가 필수적이다.
- ‘고향세’를 신설하겠다.
△도시 거주 주민이 소득세·주민세의 일부를 고향에 납부하여, 도농간 격차를 해소, 균형발전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동력 마련해야 한다.
- 전국 어업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전남 수산물에 현지에서 안전 검사받게 할 것.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을 부산 수준으로 승격시킬 것.)
- 전남도와 함께 노력하여 귀농·귀촌의 1번지를 만들겠다.

약속대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위해 뛰고, 뛰고 또 뛰었습니다.

- 처음 약속했던대로, 지난 4년 동안 농업관련(농해수)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활동했다.
- 지금도 국민의당(신당) 전국 농어민위원장으로서 대기업의 쌀 도정사업 진출 저지와 정부의 쌀 추가 시장격리를 위해 분투하고 있다.
- 앞으로도, 저는 농해수 상임위에서 계속 활동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지난 4년간 국회(농해수 상임위)는 농업관련 결의안을 총 7건 통과시켰다. 그 중 4건을 황주홍이 제안하고, 여야를 설득해서 통과시켰다.



자! 보십시오!!

1. 쌀 6만톤에 대한 조속한 시장격리 촉구 결의안 (황주홍)
2.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시 농어촌지역 대표성 반영 촉구 결의안 (황주홍)
3. 밥쌀용 쌀 수입 재고 촉구 결의문 (황주홍)
4.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문 (최규성)
5. 무역이득 공유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촉구 결의문 (황주홍)
6.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결의문 (김종태)
7. 농협 등의 비과세 예탁금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문 (최규성)

최상위권 의정활동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 지난 4년 동안 대표 발의한 법률안(주로 농수산업 분야)이 139건으로 국회 전체 상위 5%에 도달 (본회의 가결 건수 27건)
- 마지막 국감(2015년)을 마치면서 의정 평가기관들에 의해 선정된 우수 의원상만 13개로 '13관왕'에 올랐다. (300명 의원 중 상위 1% 내외이며, 호남의원 30명 중 단연 1위)

언론은 농림축수산업 분야 활동에 대해 이렇게 보도합니다.

- “황 의원이 농해수위 국감을 주도하고 있다” 광주일보 2015. 9. 22. 박지경 기자
-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바라보는 폭 넓은 안목과 대안 제시 놀랍다” 광주매일 2012. 8. 2. 김진수 기자
- “국감인물 황주홍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농지연금·밭농업직불제처럼 농업인 실익과 직결되는 질의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농민신문 2013. 10. 16. 김상영 기자
- “국정감사가 시종일관 맥빠진 분위기로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황주홍 의원은 줄곧 자리에 앉아 자료를 살펴보고 진지한 자세여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자신의 질의가 끝난 뒤에도 계속 자리를 지키며 다른 의원들 국감을 듣는 등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수산신문 2015. 9. 21. 문영주 기자

쌀 문제, 이렇게 노력했고,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 고정직불금 단가·목표 가격 인상, 정부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인상, 수매 물량 확대, 초과 수확량의 시장격리, 농협 수매물량의 확대, 대기업(롯데)의 쌀 도정공장 계획 저지, 500%대 관세율…… 등등 정부와 국회의 쌀 대책논의의 정중앙에는 늘 황주홍이 있었다. “**정치학 박사가 쌀 박사가 되었다!**”는 농담과 격려도 받았다.
- 앞으로 이렇게 하면 쌀값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정부·농협의 수매물량을 총 수확량(430만 톤)의 50% 이상이 되게
정부 공공비축미 (40만 톤 → 45만 톤) 농협 수매 물량 (165만 톤 → 180만 톤)
 - 총 생산량의 10%(40만 톤) 이상을 해외 원조 등의 방식으로 시장 격리
 - 일본처럼, 한국도 해외원조협약(FAC)에 가입하여 매년 20만 톤을 해외 원조
 - 최소 연간 5만 톤 이상을 북한에 지원
 - 미국, 호주, 중국에 10만 톤 수출하여 국내 쌀값을 안정
 - 오래된 묵은 쌀(고미)의 축산 사료화 사업에 국비 투입
 (일본은 매년 쌀 60만 톤을 사료화하고 있음)
 - 황주홍이 사상 처음으로, 전남 쌀(전남미) 제 값 받기에 앞장섰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내겠습니다.
 - 농협 수매시 전국 동일가에 매입토록 법제화
 - 같은 품종, 같은 등급 쌀값의 경우, 특정 지역의 것이 95% 이하일 때 공공예산(국비+지방비)에서 지원토록 법제화
 - 이렇게만 되면, 쌀값은 제값을 받게 되고, 특히 전남 쌀이 푸대접받지 않게 됩니다.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값을 걱정하십니까?



- 올해부터는, 늦어도 내년부터는, 그 걱정 안 하셔도 됨.
- 황주홍이 작년 정부와 여야 의원들을 설득, 「5대 농산품목(배추·무·고추·마늘·양파) 지역생산 할당제」연구용역비(2억원)을 세웠다. 대한민국 농정사에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4월 총선이 끝나자마자 시범사업을 실시 (정부·지자체·생산농가가 적정 생산면적·생산량을 관리하여 수급 불안정을 흡수하는 방식. 일본은 이미 시행중.)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하여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값을 제 값 받고 팔게 될 것.
-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하여 배추·무·고추·마늘·양파 값을 제 값 받고 팔게 될 것입니다.
- 이 일 하나만 해결해도 농가 소득이 크게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그 밖의 중요한 농업관련 공약도 지켜내겠습니다.

- 정책자금 금리(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를 모두 1%대로 인하할 것!
- 2015년 국정감사에서 황주홍이 처음으로 축산 사료 대기업들(카길, 하림, CJ제일제당, 대한제당, 두산 등)의 13조원대에 이르는 불법 담합행위를 감사했으나,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 들어가서 이들을 사법기관에 전원 고발하고, 사료값의 즉각 인하와 3천억원 규모의「축산발 전기금」을 조성토록 하겠다.
- 등급판정 받는 축산물 품목 전체에 대한 이력제 실시! 미시행 품목인 닭, 오리, 계란, 말, 벌꿀까지 수입 이력제를 확대하여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고 안정성 확보
- 무역이득공유제를 반드시 관철. 국회에서 처음으로 무역이득공유제 결의안을 제안 통과시킨 사람으로서, FTA로 인한 농·어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FTA 체결 이후 수출이 증가한 산업의 이익 일부를 '농어촌부흥세'로 적립하는 방식 등 실효성 있는 무역이득공유제 실시.
- 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을 3개년 평균가격의 90%에서 95%로 완화하고, 보전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품목별로 실효성 있는 발동기준을 재정립

우리 수산업과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 수산업(어업) 관련 정책자금 금리를 모두 1% 대로 인하!
- 수산직불제 개선! 농업직불제 총액 (1조5천억원)의 1.3% (200억원) 수준에 불과한 수산직불제 규모를 100% 늘려야.
 - △친환경 양식 직불제 도입
 - △수입보장보험의 조기 도입으로 안정적 어가 소득 보장
 - △은퇴 양식어가 및 전업 양식어가의 소득지원을 위한 경영이양 직불제 도입
 - △수산 조건불리 직불금 단가를 80만원으로 인상
-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4천만원으로 인상해 어가의 세금 부담을 축소
- 어선 감척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폐업지원금을 인상,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 통상 임금의 6개월분 상당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금어기(禁漁期) 설정으로 일자리 잃은 선원들의 보상 청구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처음 제출한 사람으로서, 4월 총선 끝나면 반드시 재추진
-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진 수산물 매매의 경우 위판장 외에서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하겠다.



- 어선원 보험 의무 가입대상을 3톤이상 어선까지 확대. 소형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추가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
- 어가 도우미 제도를 최대 15일까지로 확대하겠다.
- **여객선 공영제**를 시행하겠다. 선진 외국처럼, 수익성이 떨어지는 적자 항로에 선박과 인력, 예산을 투입하여 여객선의 안전성을 제고.



황주홍은 최소한의 복지에산을 책임감을 갖고 약속합니다. ✓

- 황주홍은 “복지 정책의 목표는 복지 수혜 국민의 증가가 아니라, 복지 수혜가 필요 없게 된 국민의 증가에 두어야 한다.”고 했던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철학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다음 몇 가지는 국가 재정 여건에 비추어 약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참전 용사들 **보훈 보상비(명예수당)**를 최소 월 30만원 수준으로 인상.
 - 국가적 재앙이 틀림없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군청 소재지에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 어린이(12세 이하) 예방접종(무료) 대상을 현재 15종의 백신에서 17종으로 확대.
 - **어린이집 교사들의 급여(보육수당)**를 최소 10% 인상.
 - 좋은 노인 일자리(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보육교사 도우미, CCTV 상시 관제사업 도우미) 사업을 도입.
 - 소득이 없는 빈곤층 노인의 경우,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현실적 문제점 해결.



“황주홍 의원은 당이나 파벌보다 나라와 국민을 우선하는 반듯한 정치를 추구하는 훌륭한 지도자다.”

국회의장 정의화



“황주홍 의원은 야권에서는 보기 드문 정통 학자 출신이면서 동시에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오랜 현장경험을 갖춘 분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모두 갖춘 분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고흥·보성·장흥·강진 공통 공약

- 득량만 권역 청정해역특구 지정·개발
 - 우리 4개 군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
 - 득량만에 국립 바다환경 오염원인 연구기관 유치
- **직불금 지급이 안 되는 고흥·강진 등 간척지 농지**에도 지급
 - 관련 법규 개정으로 오랜 민원사항 해결을 약속합니다!
- 고흥, 보성, 장흥, 강진 4개 군의 **한우 공동브랜드** 개발
- 통발 어망의 그물코 규격을 현실화(18mm로 축소)
- 9년 만에 공사 재개시켜서 '황주홍 철도'라고 보도되었던 남해안철도(목포-강진-장흥-보성)를 전철화하고 적기 완공 추진
 - 남해안철도가 국가 철도망구축 계획에 포함되도록 추진
- 4개 군 관내 농가에 벼 저장 사이로 시설 공급
- **면세유 확대공급** 정책 시행
 - 면세유 확대 공급과 이동주유소의 추가 설치운영
- 중소 하천의 홍수피해 예방 위한 홍수 통합관리 체계 구축 지원

고흥의 변화, 군과 함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 **국립 우주항공부품 시험평가센터** 건립으로 우주항공산업 선도
- 고흥을 차세대 성장 동력인 드론(무인기) 산업의 전진기지로 선정·육성
- 동강 특화 농공단지(제2) 조성
- 고흥-여수 연륙 공사(국도 77호선 11개 교량) 조기 완공위한 국비 확보
- 녹동 구항-신항 도로 4차선 확포장
- **녹동-소록도간 인도교**를 소록도 100주년 기념 국비사업으로 건설
- 소록도를 역사, 문화, 예술의 **아름다운 국가 테마공원**으로 조성
- 두원 대전 - 대서 신기 간 연륙교 건설
- 팔영산 권 관광개발 사업 추진
- **녹동·금산 권역 스포츠 관광 종합공원** 조성
 - 수영장·경기장·건강(헬스)치료 센터·유스 호스텔 건설
- **고흥-봉래(나로도 우주센터)간 국도 15호선 4차선** 확포장

보성의 변화, 군과 함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 **국립 녹차시험연구기관** 유치로 녹차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
- 보성 복내 ~ 화순 남면 간 도로 개설
- 벌교 갯벌을 국립공원 지정
 - 람사르협약 습지보전지역 여자만 갯벌(30여만㎡) **해양테마공원** 조성

- 벌교역 광장 우측 상가와 뒤쪽 군유지에 국비 주차장 건설
- 벌교 철다리에서 **국도 2호선 진입도로(보성쪽)** 개설
- 회천-득량-조성 간 해안도로의 국도 승격
- 울포, 동율, 군농 일대 휴양관광지 확충사업 추진
- 기존 해수욕장탕의 신축과 전망대 설치 및 해변송림공원 조성
- 보성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수질 개선과 서식지 복원
- **벌교 꼬막 목장화사업** 추진으로 꼬막가격의 안정 및 경쟁력 확보
- 국도 18호선(보성읍 보성리~회천면 영천리 간 14km) 확포장 공사
- **보성 향토시장 진입로 개설과 대형 주차장** 건설

장흥의 변화, 군과 함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 통합의학센터를 중심으로한 **치유(힐링) 센터 건립**
- 통합의학센터 연구개발(R&D) 국비와 힐링 센터에 국비·민간자본 유치
- **노력향을 국가연안항으로** 하기 위한 정부 연구용역 확정하였습니다!
- 국가항 건설비 국비(300억원) 조기 확보
- 제주가는 오렌지호 재 취항위한 국·도비 유치
- 신마항 공사 피해어민 보상 해결
-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청준문학관을 포함하는 **국립문학관(문화관광부 공모사업)** 유치
- **국도 23호선**(유치-장흥-용산-대덕) 4차선 확포장
- 보림사 명상센터 건립
- 토요일시장 활성화 위한 강변주차장 개선과 천변 하상 데크 설치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역사교육 활용을 위한 운영비 국비 지원
- 관산고등학교를 **국립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로 전환
- 김성 군수, 곽태수 의장, 위등·왕윤채 의원 등과 추진에 합의

강진의 변화, 군과 함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 **고려청자 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
- 신마항에 화물선이 조기 취항토록 추진
- 10년 만의 강진만 어업 피해 영향사업 마무리와 피해 보상
- **교통안전체험센터** 유치
- 하멜촌 조성 사업
- ‘하멜기념관’을 중심으로 전라병영성 등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개발
- 강진-마량간 (**국도 23호선**) 4차선 확포장
- 강진 도암-해남 옥천간 (국도 18호선) 4차선 확포장



황주홍의 소소한 고백

★ 쓸 땐 쓰는 황주홍

△ 20 군데가 넘는 공익단체에 매월 소정의 기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사)백범문화재단 /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 (사)사랑의 빛 / (사)한국여성의 전화 / (사)한국 효도회 / (사)홀트아동복지회 / (사)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 (사)위스타트 / (재)영암군민장학회 /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재)통일나눔/(재)희망제작소/강진군민장학재단 / (국민사)한국 / 굿네이버스(국제구호개발NGO) / 대륙으로가는길 / 돌쇠김현주기념사업 / 동아시아미래재단/목포국동방송 /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 월드비전(국제구호개발NGO) / 유니세프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우리들의 따뜻한 이웃 황주홍

★ 다음 글은 「의정보고서」에 실린 황주홍 자신의 글임.

-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 자신의 삶부터 필요한 사람입니다.
- 저는 구멍가게나 노점상으로부터 과일 등을 살 때 거스름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입한 것 외에 덤으로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덜 갖고, 더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오히려 좌판 할머니가 우수를 더 주려고 하면, 괜찮다고 사양하는 편입니다.
- 저는 가끔 영업용 택시를 탑니다. 저는 실제 요금보다 1, 2 천원이라도 더 얹어주고 택시에서 내립니다. 저희 자동차로 움직일 때는 절대로 끼어들지 말 것, 경적을 울리지 말 것, 사람이 길 건너갈 때는 무조건 양보할 것, 등을 운전 비서에게 입버릇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 재작년 저희 어머니 장례식을 치른 뒤에는 들어온 부의금을 형제들과 어려운 친척들에게 조금씩 나눠 주었습니다. 우리 영암·장흥·강진군 장학재단에도 천만원씩 냈습니다. 어머니를 간병해 온 아주머니에도 천 만원을 주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극구 사양했지만, 저는 간병에 감사하며 끝내 전달하였습니다.
- 저는 국회의원이 되어 받은 첫 월급 전액을 3개 군민 장학재단에 기탁하였습니다.
- 저는 제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는 국민, 군민, 유권자야말로 “중요한 존재(somebody)”들이십니다.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낮아지고, 국민 여러분이 높아지는 그런 세상을 저는 꿈꾸며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황주홍이 걸어온 길

» 학력

- 광주일고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사 & 정치학 석사)
- 미국 미주리대 (정치학 석사 & 정치학 박사/1982년~1989년)

» 경력

- 미국 미주리대 강사
- 미국 미네소타대 연구교수
- 아태평화재단 연구실장 & 기획실장
- 국회 정책연구위원 실장(1급)
-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학과장
- 전남 시장·군수 협의회 회장
- 전국 정당공천폐지 특별위원장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동대표
- 강진 군수 (3선)
- 백범문화재단 이사
-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위원장
- **현재 국민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 **현재 국민의당 전국 농어민 위원장**
- **현재 제19대 국회의원(농림축산수산 위원)**

» 저서/역서

- 현대정치와 국가 (연세대학교출판부, 1992)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1991)
- 서양정치사상 (문학과지성사, 1993)
- 토니블레어, 영국개혁 이렇게 한다 (중앙M&B, 1998)
- 패자부활전이 있는 나라 (풀빛출판사, 2000)
- 패자부활전, 희망의 다른 이름 (풀빛, 2002)
- 지도자론, 한국의 리더와 리더십 (건국대출판부, 2002)
- 황주홍 교수의 미래학 산책 (조선일보사, 2002)
- 강진군에서도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전남대출판부, 2010)
- 군수가 벼슬이랑가? (전남대출판부, 2011)
- 새 정치 난상토론, 국민은 비록 틀렸을지라도 옳다 (이지북출판사, 2013)
- 한국의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다 (열린아트, 2016)



보좌관과 비서관이 본 직장상사, 국회의원 황주홍

“대학교수, 3선 군수, 국회의원을 지내고도 그는 늘 젊다.
권위란 찾아보기 힘들고, 생각은 파격이다.
주변의 부조리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상대가 누구건 잘못은 즉시 지적하고,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한다.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무섭게 밀어붙이는 힘이 압도적이다.
그런 그에게 일은 많고,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다.
그러나 그가 맡은 책임은 꼭 완수되고,
그가 이룬 성과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흐뭇하게 한다.
그는 오직 국민만을 위해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고 싶어하는 공직자다.”



황주홍 3

소신과 추진력에서 다릅니다.